

“경우의 수 잊었다...오로지 승점 3”

광주FC, 오는 10일 리그 마지막 원정 제주戦

고베戰 패배는 보약...승리 시 자력 잔류 확정 '민고 보는' 김경민, '부활 선언' 베카 활약 기대



광주FC가 K리그 잔류를 확정 짓기 위한 승점 3점 획득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2024 K리그 37R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이번 시즌 마지막 리그 원정 경기를 갖는다.

현재 리그 8위 광주(승점 45점)는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잔류 안정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 짓기 위해선 승점 3점이 필요하다.

비록 주중 고베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ACLE 4연승은 좌절했지만, 제주전 승리를 통해 리그 잔류를 확정 짓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키플레이어는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된 김경민이다. 김경민은 국가대표 역대 두 번째 최고령 첫 발탁(33세 3일)이라는 이정표를

남기며 '늦게 핀 꽃'으로 만개했다. 김경민은 상대의 강력한 전방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패스를 연결하며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한다.

실점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슈퍼세이브를 연달아 선보이며 광주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주중 고베전에도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7번의 선방을 기록하며 국가대표 골키퍼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플백으로 변신한 조성권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팀 사기를 북돋는가 하면, 3백과 5백을 오가는 전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베카의 활약이 기대된다.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등 플레이오프 권인 10위



지난 5월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광주FC 이희균이 골을 터뜨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제공>

대구(승점 40점)와 승점 5점 차이를 유지 중인 광주는 같은 시간에 치러지는 대구와 전북의 대결에서 양팀이 무승부를 거두거나 대구가 패배할 경우 잔류가 확정된다.

그러나 경우의 수는 뒤로 하고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 짓기 위해서 오로지 승점 3점을 목표로 경기에 임

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5월, 제주 원정에서 6연패 사슬을 끊었던 광주FC.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인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향한 간절함을 안고 경기장에 나선다. 광주가 내년에 K리그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설명회

광주시체육회는 7일 광주시체육회 관 회의실에서 종목단체 회장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종목단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광주시체육회에 가입된 78개(정회원 63, 준회원 9, 인정 6)종목단체 뿐만 아니라 자치구체육회, 자치구종목단체까지 참석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7일 설명회에서는 '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회장선거 세부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변경된 선거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다.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은 "회원종목단체 선거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7일 TF팀을 사전에 구성했다. 이번 설명회를 비롯해 광주시종목단체 및 자치구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024 전남-서울 생활체육 교류행사에 참가한 전남선수단이 서울체육회가 주최한 환영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함께 한 20년...함께 할 100년’

전남-서울, 생활체육 교류행사 성료

전남과 서울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서울에서 스포츠로 우의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울시일원에서 2024년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목별 교류와 체육·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시·도 협력체계 구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4년 교류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순천에서 열린 제35회 전남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했던 서울시 선수단은 올해 전남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했다.

교류행사에는 6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검도와 수영, 농구, 족구 등 4개 종목에서 친선 교류전을 가졌다.

체육행사 외에도 대학로 연극 관람과 잠실종합운동장, 잠실 롯데타워 일대를 견학하며 문화체험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년째 이어져온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를 통해 교감의 깊어지고 형제애가 더욱 커졌다”며 “전남선수단을 환대해준 서울시 선수단에 감사의 전하며, 내년에는 영광에서 서울시 선수단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 야구 대표팀과 상무 야구단의 연습경기. 마운드에 오른 대표팀 투수 정해영, 광도규, 최지민(왼쪽부터)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영·광도규·최지민 ‘불펜 야구’ 선봉

프리미어12 야구대표팀 ‘류중일호’, 엔트리 28명 확정

최연소 ‘30-30’ 김도영 등 KIA 태극마크 5명 배출 류중일 감독 “선발 요원 4명, 막강 불펜 믿고 간다”



류중일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과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2024 세계 야구소프트볼연맹(WBC) 프리미어 12에 나설 28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KBO는 대표팀의 대만 출국을 하루 앞둔 7일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28명)를 발표했다.

6일까지 34명의 선수가 최종 엔트리 승선을 노리며 훈련했고, 투수 엄상백(kt), 전상현(KIA), 김시훈(NC), 조민석(국군체육부대)과 포수 한준수(KIA), 내야수 김영웅(삼성) 6명이 나

마했다.

가장 의외의 탈락자는 선발 투수 요원 엄상백이다. 엄상백이 최종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한국 대표팀 선발 요원은 광빈, 최승용(이상 두산), 고영표(kt), 임찬규(LG) 4명만 남았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선발 요원 4명으로 B조 예선 5경기를 치른다.

프리미어12는 WBC 랭킹 상위 12개국이 출전하는 국제대회다.

A조(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경기는 10일에 멕시코에서 개막하고, 한국은 B조에 속해 13일부터 대만에서 경

기를 치른다.

한국은 13일 대만, 14일 쿠바, 15일 일본, 16일 도미니카공화국, 18일 호주와 차례대로 맞붙는다.

한국은 2015년 1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고 2019년 2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정했다.

한국은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를 투수 14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으로 꾸렸다.

LG에서 가장 많은 6명(임찬규·유영찬·박동원·문보경·신민재·홍창기)이 뽑혔고, ‘통합우승’에 빛나는 KIA는 5명(정해영·광도규·최지민·김도영·최원준)을 국가대표로 배출했다.

두산 4명(광빈·김택연·이영하·최승용), kt(고영표·박영현·소형준)와 NC(김형준·김휘집·김주원) 3명씩, SSG(조병현·박성한)·롯데(나승엽·윤동

희)·키움(송성문·이주형)에서 2명씩, 한화(김서현)에서 1명이 선발됐다.

이번 대표팀의 강점은 불펜진이다. 손주영, 원태인(삼성) 등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불펜진을 향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박영현(kt), 김택연(두산), 정해영(KIA), 조병현(SSG), 유영찬(LG) 등 소속팀 마무리 투수로 뛰는 5명이 최종 엔트리에 들었다.

류중일 감독은 “우리 불펜 투수들이 정말 좋다. 선발이 40닝 정도만 막아 줘도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KBO리그 역대 최연소 30홀런-30도루 기록을 세운 김도영(KIA), 쿠바와 평가전에서 시원한 홈런을 친 나승엽(롯데), 다재다능한 송성문(키움) 등 젊은 타수들과 베테랑 홍창기, 박동원(이상 LG)이 조화를 이룬 타선에도 기대를 건다. /연합뉴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6일 순천어울림체육센터에서 전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순천 만다비체육관, 전남장애인체육 요람으로...

전남 최초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

전남 지역 최초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7일 “지난 6일 순천시 만다비체육관에서 전남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센터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체육회, 오늘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교육

광주시체육회가 8일 광주시체육회 관 스포츠과학연구원서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광주시체육회가 ‘2024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운영사업’ 공동유치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사업은 경희대가 총괄하며, 지역에서는 전남대와 부산대가 공동 참여한다. 산업체로는 17개 시·도 체육회 중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원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가 참여해 산학연 융복합 사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고도화와 스포츠과학 코칭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이다.

이날 교육은 체육진흥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 양성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필요한 스포츠과학 이론

과 실기가 결합된 실무 중심형 스포츠과학 교육 지원으로 이뤄진다.

국내 최고의 스포츠 과학 전문가가 이날 광주를 찾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도자, 체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수 트레이닝 이론과 실습 ▲체력 트레이닝 ▲컨디셔닝 이론 및 실습 등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박희중 기자